

북미정상회담 '성공 신호탄' 남북미 3국 정상 만날까

12일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
'의미있는 결과' 맨 3국 회담 가능성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3명이 함께하는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남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준비가 한창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 당사자인 3국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는 7월로 예정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차 파견했다는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가 남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배



31일 오전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묵고 있는 싱가포르 호텔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전날까지 경찰 순찰은 없었다. 이날 오전 호텔측은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으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 파견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회담이나 남북미 회담 준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북미가) 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90분 가량 만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찬장 분위기가 정확히 전해지진 않았지만 짧다고만은 할 수 없는 '탐색전' 성격의 회동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밀도 높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31일(현지시간) '메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본 회담을 열어서 '완전하고 겹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안전 보장(CVIG)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접촉들'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은 결국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플러스알파(+α)의 회담, 다시 말해 남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와 관

련해 주목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싱가포르에선 사흘째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대표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副)비서실장은 지난 30일 오후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의 미 측 실무팀 숙소인 카펠라호텔에서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한 채 4~5시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펠라 호텔 측은 오전까지만 해도 호텔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했지만, 북미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엔 진입로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함에 따라 각국 취재진은 김창선 부장의 벤츠 차량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양측이 카펠라호텔에서 단순히 의견 등에 대한 협의만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4시간 이상 김창선 부장이 호텔에 체류하면서 양측이 회담의 의견, 경호 등 실무를 논의하는 동시에 회담장 또는 정상 숙소로서 카펠라 호텔의 적합성을 점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지난 30일 6·13 지방선거에 나선 서울시장 세 후보들이 첫 공개 토론의 장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 '한목소리'... 공약은 '신경전'

6·13 서울시장 후보 공방

박원순

전기차 보급·충전소 인프라 확충

김문수

4년간 예산 2배 매년 5000억 투자

안철수

공기정화기 설치 등 스마트도시 구축

초미세먼지 주의보로 서울시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에 나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저감 공약'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또 지난 30일 열린 첫 공개 토론회에서 김문수·박원순·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원순 후보가 주력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주로 차량 배기 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이다. 박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미세먼지를 3대 공약에 직접 언급하지 않고 주로 전기차 보급·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에너지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 세부내용을 보면 ▲배달용 오토바이, 택배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서울형 자동차 환경등급제 시행과 녹색 교통진흥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태도시숲·생활권 공원 조성 확대

▲물순환 빗물마을 확대·물순환 그린인프라 확충 ▲태양광발전소 1㎿만 가구 설치 ▲미니발전소 90만 가구 보급 ▲나눔발전소·커뮤니티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31일 바 후보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2만377가구에 태양광미니발전소를 설치했고, 에너지자립마을 80개소 조성,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을 만들기 위한 1245만 그루 나무심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366만TOE 절감, 온실가스 819만톤CO2 감축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서울의 미세먼지를 30% 저감시키겠다며 시민들의 마세먼지 마스크를 벗기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4년 동안 환경 예산을 2배로 책정해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공약의 이행 방안으로는 ▲미세먼지 집진탑(자치구별 4대) 100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 ▲지하철·지하상가에 공기 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도입 ▲전기차·수소차 등 미세먼지 저감

용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도로 비산먼지 저감용 도로 청소차 1000대 확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설치 의무화 추진 ▲그린 빌딩, 그린 월 등 도

시 집진 녹화사업 실시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및 5배 확대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협력 강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서울시의 미세먼지가 서울시 본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경기도나 인천과의 환경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공약은 다른 두 후보와 차별점을 갖는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실내외 미세먼지의 맞춤형 해결을 통한 '청정안심(淸淨安心)' 공기 회복,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의 도로·교통·쓰레기·전력·물 관리체계 구축으로 서울을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스마트도시로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어린이집·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기정화기·미세먼지 마스크 비치 ▲지하철역사와 버스 정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외 공기정화기 설치 ▲수소버스 등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이 있다.

특히 초음파·플라즈마 등 국내 우수기술을 이용한 대형 실외 공기정화기 한국형 '스모그프라타워' 시범설치 뒤 주요 거점지 10곳에서 상용화를 한다고 선언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김영철-폼페이오, 뉴욕서 만찬회동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美 국무장관〉

공식회담 앞두고 탐색전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 준비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90분간 만찬회동을 가졌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등 핵심 의제와 일정을 놓고 큰 틀의 담판을 지울 31일 공식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탐색전에 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만찬은 뉴욕 맨해튼 38번가 코린티안 콘도미니엄에서 있는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의 관저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 15분 전에 만찬장에 먼저 도착했다.

김 부위원장은 만찬장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유앤플리자 호텔에서 약 10분 전에 출발, 만찬 시간에 거의 맞춰 도착했다.

이날 만찬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김 부위원장이 주재한 오찬에 대한 답례 성격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만찬 종료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2장의 사진을 올렸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만찬장에서 서서 미소를 머금은 채 악수하는 사진과 배석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역시 웃는 표정으로 잔을 맞대고 건배하는 사진이다.

배석자 중에는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폼페이오 장관 접견 때 배석했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 임무센터(KMC)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부위원장)과 오늘 밤 뉴욕에서 훌륭한 실무 만찬을 가졌다"면서 스테이크와 콘(옥수수), 치즈가 메뉴로 나왔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한 두 장의 사진과 설명으로 볼 때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차석대사의 관저에서 만찬에 앞서 미소를 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만찬은 약 90분 만에 끝났다.

김 부위원장이 오후 8시 30분께 먼저 만찬장이 있는 고층아파트 건물을 나왔고, 약 5~6분의 시차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도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 모두 취재진에게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차량을 타고 만찬장에서 떠나 곧바로 숙소로 들어갔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9시부터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국무부가 밝혔다. 다만 장소는 공지되지 않았다.

그동안 진행돼온 양국 간 판문점·싱가포르에서의 접촉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 측의 체제안전 보장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 핵심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부는 또 폼페이오 장관이 오후 2시 15분(미국 동부시간·한국 시간으로 6월 1일 오전 3시 15분) 미국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회담 결과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